월요광장

도시재생사업이 잘되려면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전국의 낙후 지역에 5년 동안 매년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총 50조 원을 투입하게 된다. 처음엔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우리동네 살리기 등의 사업 유형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제 4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시행착오와 시대 여건 등을 반영해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재생사업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현재의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종합 재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거주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 기능을 재활성화시킴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한다. 여기에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소유주와 임차인, 사업 주체와 주민 간 상생 유도를 통한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다. 또한 업무·상업·창업 등 다양한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 재생 경제 조직 등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협의회,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도시재생 지원센터, 행정을 중심으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유기적으로 잘 해내야 한다. 즉, 도시재생 성공의 키워드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부처 간 협업과 민관 협력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의 중앙 주도 방식(Top-Down)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 주도 방식(Bottom-Up)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해졌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광역과 기초 모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청회의 참여 수준은 높게 나타났으나, 주민 협의체 구성, 간담회, 설명회, 주민 역량 강화 등에서는 형식적인 참여 수준을 보였다. 여기에 주민 대표 조직인 주민 협의체와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과 사업 추진 등에서는 비교적 능동적인 참여 수준을 보였지만,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참여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초기 단계인 사업 준비와 계획 수립 단계에서 광역에 비해 기초에서 아이디어 공모나 계획 수립 작성에 참여하는 등 능동적인 참여 수준을 보였지만,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의문 등 실질적인 행정 처리 등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 참여가 중요한데 정작 사업 선정 초기 이후에는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부 자료 2020년 지자체별 재생사업 예산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서울 55%, 부산 65%, 대구 77%, 인천 58%, 광주 61%, 대전 57%, 울산 41%로 나타나고 있다. 도 단위에서는 경기 69%, 전남 76%, 전북 80%, 경남 86%, 경북 73%, 제주 73%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서울 및 광역지자체 중에는 집행률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전국 평균 69.6% 이하에 머무르고 있어 좀더 분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유형별 실집행률은 경제기반형 70%, 중심시가지 73%, 일반근린형 75%, 주거지 지원형 70%, 우리동네 살리기 66%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규모 뉴딜사업은 기반시설 정비 등에 예산이 투여되면서 실집행률이 오르는 반면 우리동네 살리기의 집수리 지원사업이나 골목길 정비처럼 주민과의 협력과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업들의 진행은 더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주민과의 소통과 행정의 리더십이 더욱 필요하다.

현재 광주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사업들 중에는 사업 기간이 끝났음에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가 하면 정확한 사업 종료 시기도 특정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들은 올해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률이 저조하여 국토부의 질타를 받고 있는 지역들도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도시재생사업 주체 간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그중 하나다. 주민 주도나 주민 참여를 말하지만 정작 사업이 속도를 내 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집행이나 관리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앞에서 성공 사례로 언급한 것처럼 사업의 주체인 주민협의회, 총괄 코디네이터, 현장지원센터와 행정이 서로를 존중하고 자신이 맡은 부분을 적극적이고 충실히 진행해야만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수필의 향기

삶의 은유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

인생은 꽃길만이 아니지만, 정글도 아니다. 평지를 지나 산을 넘고 또다시 들판을 만나듯이 우리는 그렇게 미지의 세상을 자기 방식대로 건너고 있다. 봄과 여름의 싱그러움과 울창함, 가을 단풍과 설백의 겨울을 만끽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간다.

누구에게나 삶은 하루하루 신비로움의 연속이다. 그러나 그 일상이 순탄하기만 하면 신비로움도 반감될 것이다. 세상은 호기심 가득한 곳이지만 동시에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정글 속 비경에 빠져 있는 동안 뜻하지 않게 맹수를 만나고 지뢰를 밟기도 한다. 그런데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만 세상은 새로움을 보여주고 더 큰 호기심을 만나게 한다. 도전하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자기 내면에 자신만의 진한 무늬를 새겨 넣을 수 있는 것이다.

탐험은 신비롭지만, 모험은 위험하기에 살면서 앞서 살아간 선각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들이 곳곳에 남긴 삶의 지도, 어두운 동굴 속 횃불과 같은 망망대해에서 필요한 지도가 바로 삶을 응축한 은유이다.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그다지 믿지 않았지만 돌이켜 보면 그 시절 꾸었던 꿈으로 인해 지금의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때론 가난이, 때론 좌절이 꿈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라고 했을지라도 대부분 내가 선택해서 발을 들여놓은 곳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다.

'사랑은 차가운 유혹, 눈물의 씨앗'과 같은 노래 가사는 사춘기를 넘는데 징검다리처럼 유용했다. 실연당해 절망에 빠졌을 때, 나를 다음 돌다리로 건널 수 있게 해준 은유는 콕 찌르는 직유와 달리 곡선적이고 여성적이어서 부드럽고 잔잔하게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말은 마음의 소리여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품성을 드러낸다. '품성이 말하고 품성이 듣는다'는 구절에 무릎을 절로 친다. 말로 실수를 하여 곤욕을 치른 다음에는 신중하게 말해야겠다는 은유로 되돌아본다.

'스물에 게을러지지 않으려면 부모를 떠나야 하고, 마흔에 미련해지지 않으려면 부모를 떠나야 한다.' 진정한 자립이 무엇인지 나를 후려친 은유이다. 이후 난 홀로서기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 같다. 삼인성호나 토사구팽, 구밀복검과 같은 인간의 내면에 감춰진 비수를 보여주는 은유는 갑옷이나 방패로 내 몸을 보호해주기도 하였다.

중년이 되면 귀가 순해진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說乎)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아니하면 또한 군자가 아닌가.(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공자의 인생삼락에는 유유자적하게 세상을 사는 법이 들어있다.

우리가 직접 부딪히고 깨져 가며 체험하는 것이 직유라면, 누군가의 말을 참고하여 조심조심 삶을 건너는 것이 은유다. 그래서 은유는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생각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아량이 있어야 내게 온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에 난다'는 말처럼 늙고 몸이 쇠해지면 지혜로워진다. 제행무상, 무소유, 앞 강물은 뒷 강물에 밀려난다는 은유를 통해 세상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안목을 갖는다. 완도 해안가 공동묘지에 우뚝 세워진 공수래공수거를 온몸으로 받아들인다. 진리이고 또 진리이다.

삶의 은유는 때론 책 속에서, 속담이나 노래 가사에서, 심지어는 화장실 낙서에도 있다. 요즘은 술집에 가면 벽면을 주시한다. 누군가의 명언을 옮겨 적은 것도 있지만 간혹 자신의 삶을 명징하게 응축해 놓은 구절을 만나면 보물을 찾을 때보다 기쁘다.

만사에 감사하라. 돌이켜보니 불평 많은 삶이었다. 힘겨운 삶도 감사하게 살아간다면 훨씬 덜 힘들고 더 행복할 것이다. 무사히 인생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선지자들이 곳곳에 그려 놓은 암각화, 어디에서는 어떻게 통과하고 또 어느 곳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하라는 지도가 삶의 은유이다.

빵이나 밥은 아니지만, 이런 은유들을 깊숙이 이해하고 체화하면 삶은 더욱 풍성하고 윤택해진다.

현자들이 남긴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 회자하는 문구는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드러나 있다.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세상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사유는 천년이 지나도 우리 곁에 살아 숨 쉰다.

기 고

다시 오월, 뮤지컬 '광주'

유희성
서울예술단 이사장
뮤지컬 '광주' 예술감독

당시 나는 연극학도였다. 극단 예후 단원으로 학업과 예술의 언저리에서 바쁜 청춘을 보내고 있었다. 5월 17일로 기억한다. 단원들은 마치 소풍을 가듯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 일찍 무등산 등산객을 대상으로 기금 마련 행사를 벌였다.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썬캡을 팔며 연극을 홍보했다. 주말에 등산객이 아주 많다기에 그날도 일찍 나섰다. 그러나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 며칠 전부터 시위 소식이 들려왔다. 그동안 그렇게 급박한 긴장감을 감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날은 무언가 심상치 않았다. 남은 전단지와 썬캡 등을 연출 겸 극단 대표가 근무하는 신문사 사무실에 보관하기 위해 도청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시내가 가까워 오자 최루탄의 매캐한 냄새가 났다. 도청 앞과 전일빌딩, Y다방 앞은 어제까지 보고 지나쳤던, 나름 낭만이 흐르던 거리가 아니었다. 시위대와 군인들, 그리고 시민들의 무리가 쫓고 쫓기고 있었다. 매스꺼운 최루탄 가스에 설상가상 아스팔트 교체로 인한 냄새까지 뒤엉켜 화탕(火湯)지옥 같았다. 눈물범벅 콧물 범벅 땀범벅이 된 채 토악질을 해댔다. 꿈속에서 아무리 도망가려 발버둥을 쳐도 꼼짝할 수 없는 것처럼, 발길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1987년 서울예술단 단원이 되었다. 5월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부채 의식을 갖고 그날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극작, 음악 구성, 안무, 출연 등 창작 가무극을 준비해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 올렸다. 그렇게 나의 방식대로 떠도는 그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영혼들에게 예를 갖추었다. 2013년엔 광주문화재단의 '제2회 세계아리랑 축전'의 일환으로 뮤지컬 '빛골 아리랑'을 광주에서 작업했다. 서울예술단 작품이 아닌, 광주에서 뮤지컬을 기획, 제작하는 것은 그게 처음이었다. 광주 출신으로 서울에서 일찍이 뮤지컬을 시작해 명성도 얻은지라 고향에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선배의 부름에 재깍 달려왔다.

'빛골 아리랑'을 통해 막이 할머니의 친 아들과 입양아들 사이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인연으로, 통한의 아픔을 뱉어 내는 숙명의 울부짖음을 무대에 올렸다. 5·18로 인해 무너진 한 가정사의 아픔을 통해 광주의 5월을 뮤지컬로 그려냈다. 극작 김은성, 작곡 강상구, 안무 오재익, 연출 유희성 등 메인 스탭들이 머리를 맞대고 광주 출신 배우들과 서울의 뮤지컬 배우들이 어우러진 무대는 기대 이상의 호평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보조금과 광주시 예산 감축으로 인해 더 이상 공연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아쉬웠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임을 위한 행진곡'의 대중화·세계화 작업의 일환으로 광주문화재단이 기획한 뮤지컬 '광주'가 지난해 홍대아트센터 무대에 올려졌다. 이어 광주 및 지방 공연에 나섰고, 올해는 LG아트센터에 공연에 이어 5월 15·16일 광주 공연을 앞두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군 정보요원으로 근무했던 김용장 씨와 전 보안사 특명 부장 허장환 씨의 증언을 토대로 작품을 구성했다. 기존 5·18 민주항쟁을 다룬 작품들이, 그 시대 그날의 상황과 시민의 입장에서 조망했던 것과는 다르게, 부마항쟁 때도 있었다는 편의대원의 시각에서 바라본다. 항쟁의 현장에서 옛 동료와 만나고 시민들과 만나며 정신적인 혼란과 인간적인 흔들림으로 마지막에는 스스로 기꺼이 민주 항쟁에 동참하는 편의대원의 시각으로 5·18을 그렸다. 양심 고백과 증언은 울컥한 감동을 준다.

5·18 민주화운동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서의 기록과 보존도 중요하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거듭 태어날 필요성이 있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의 대중화·세계화 작업으로서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로도 확산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뮤지컬 '레미제라블' 못지않은 예향 광주의 자부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대서사가 있다. 뮤지컬 '광주'는 시즌 2를 맞이해 더욱 정리된 모습으로 광주 관객과의 만남을 도모하고 있다. 언제까지나 계속 무대에 오르는 불멸의 명작, 뮤지컬 '광주'가 그렇게 되길 손꼽아 고대한다.

社說

가족 모임 느는 '가정의 달' 생활 방역 철저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 간 모임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가족과 지인에 의한 일상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린이날·어버이날 등을 계기로 밀접 접촉이 이뤄질 경우 대유행의 또 다른 고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주말 장성군 공무원 확진자 A씨와 직간접 접촉으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다. 그제 발생한 열다섯 명 중 절반 이상인 여덟 명이 A씨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광주에서 독서실이나 교회 등을 방문해 주민들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어제까지 A씨 관련 누적 확진자는 광주에서만 열한 명에 이른다.

문제는 A씨처럼 최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가 적지 않은 데다 가족·지인 간 전파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지난달 광주에서는 음식점과 주점 등을 매개로 60여 명이 감염됐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가족·지인에 의한 n차 감염 사례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전남에서는 목포와 무안 지역 학교나 학원 및 과외 장소 등 교육 활동 과정에서 잇따라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기념일이 많은 가정의 달을 맞게 되는 방역 당국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23일까지 3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광주시도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앞으로 1주일간 더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평균 600~7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가족 간 모임과 행사 등으로 접촉이 늘어날 경우 감염 위험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족과 지인을 만나더라도 가급적 실내를 피하고 야외에서 거리 두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경찰 간부들 복무지침 어기고 골프 쳤다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특별방역 관리주간에 경찰 간부들이 골프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연가를 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의 모임을 금지한 정부의 복무지침을 어기고 평일에 골프를 친 것이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영암의 한 골프장에서 나주경찰서장과 나주경찰서 간부 세 명 등 경찰 네 명이 연차휴가를 내고 골프를 쳤다고 한다. 이날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특별방역 관리주간(지난달 26일부터 5월2일까지)으로 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전남경찰청 역시 이 기간에는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나 참석 인원과 상관없이 음주·회식을 금지한 바 있다. 다른 부서원들과의 모임도 업무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 모임을 가져 복무지침을 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2년 이상 모든 일상을 앗긴 채 극도의 피로감 속에서도 묵묵히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감을 안겨 주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감염병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방역 당국의 행동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터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가 모범은 보이지는 못할망정 복무 지침을 어겨서야 되겠는가.

무엇보다 공직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본연의 공직 자세를 확고히 인식하고 현재의 위중한 코로나 비상 상황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전남경찰청 감찰계는 이들이 복무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사안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강대국의 갑질

국제사회는 철저히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되는 비정한 무대다. 정해진 법률에 따라 모든 구성원이 일정한 보호를 받는 개별 국가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 작동한다. 겉으로는 '우호' '친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론 '약자가 강자에게 잡아먹히는' 냉정한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고갈되어 가는 유한한 자원을 두고 겨뤄야 하는 만큼 '법보다 주먹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엔 전쟁과 같은, 한 국가의 존폐를 좌우할 만한 극단적이고 강력한 형태의 충돌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각국 지도자들 사이에선 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하는 갑질이 여전히 존재한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전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재임 당시 외국 정상들에 대한 악평으로 갑질의 극치를 보여 주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직접 '바보'(stupid)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러시아의 주머니 속에 들어 있다"고 비난했다. 또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와 통화에서도 '바보'(fool)라고 부르며 "줏대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 같은 트럼프의 갑질에 메르켈 총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메이 전 총리는 '허둥거리며 불안해했다'고 CNN은 전했다.

이제는 민간인이 된 트럼프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악담을 퍼부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달 23일 이메일 성명에서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또 협상가로서 약했다"며 좋지 않게 평가했다. 물론 문 대통령이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변죽만 울렸다"고 평가한 데 대한 불만 섞인 반응으로 보이지만, 지나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동맹국 지도자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는' 트럼프의 태도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등에 업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외국 전직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지 않은 청와대를 보면서 쓰린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